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12.24. ~ 2019.1.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처음에 생각했던 대학교가 아니어서 당황했다. 기존의 생각했던 대학교 같은 건물이 아닌 한 건물에 기숙사식 학원 같은 건물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안전하고 좋았다. 위치는 산 속이다.
수업	가게 되면 선생님이 총 7명을 배정 받는다. 8시간 공부하고 어휘, 읽기, 토익스피킹, 페이스투페이스, mmc 수업을 듣게 되는데 토익스피킹을 2번 들어야한다. 수업 방식은 선생님 따라 다르다. 하지만 거의 모두 뽀뽀하게 진행하지 않고 여유있게 진행해서 힘들지 않고 영어로 게임을 한다던가 프리토킹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친해질 기회가 생긴다. 수업도 레벨테스트로 레벨을 나누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선생님과 맞지 않으면 교체도 가능하다. 수업시스템은 좋다.
Activity	일주일에 1~2씩은 activity 활동을 진행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야외 액티비티인 요트체험, 체육대회, 리조트 실내인 레크레이션 영화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학교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춥지도 덥지도 않았던 날씨라서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다. 일교차도 별로 크지 않아서 얇은 긴팔 티셔츠 1~2장 정도 챙기면 된다.
안전	치안은 되게 안전했다. 기숙사도 2시간 내내 가드분이 지키셨고 씨씨티비도 복도나 공공장소 내에 하나씩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되게 안전했다.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약간 노후화된 시설이 있다. 가끔 욕실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물이 안나온 다던가 온도, 수압이 조금 아쉽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가드 분이나 선생님이 오셔서 고쳐준다.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고, 가끔 바퀴벌레나 나방도마뱀이 나타난다. 침착하게 가드분들을 부르면 잡아주셔서 괜찮았다. 처음에만 당황하지만 살다보면 적응이 된다. 가끔 안나오는 방이 있다.</p>
식사	<p>학교식당(<input type="checkbox"/>) 홈스테이(<input type="checkbox"/>) 외부식당(<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3끼 내내 학교식당에서 급식을 준다. 한식으로 주기 때문에 괜찮다. 적응하는데 문제 없다. 그리고 종종 외부식당을 이용한다. 물만 조심하면 괜찮다. 가격도 비싼 편이 아니라서 나는 저녁을 거의 매일 외부에서 먹었다. 현지식당은 코코라임이나 망이나살을 추천한다.</p>
교통	<p>교통같은 것도 현지 교통수단인 FB나 택시를 이용한다. 현지 분들이 운전하지만 친절하고 안전하다. 그 외에는 학교차량을 이용한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80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45	
기념품비	15	
합계	140	

5. 출국 전 준비사항

여권이나, 여권용사진, 인터넷티켓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한다. 그 외에 개인 옷이나 필수용품을 준비한다. 여기는 물가가 한국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구매해도 괜찮다. 또 괜찮은 브랜드가 많다. 또 준비하면 좋을 것들은 선생님들을 위한 한국식 선물을 준비하면 괜찮다. 또 한인마트도 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다녀온지 일주일이나 다 되가는 시점에서 너무 좋았다고 평가한다. 단지 영어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그곳에서의 추억이나 인연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아서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난다. 선생님들도 영어가 안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속도나 문법에 맞춰주고 잘 알아들으셔서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또 여행지 같은 것도 야외 활동으로 가거나, 수업이 끝난 뒤 가까운 바닷가나 쇼핑몰을 거의 매일 갔기 때문에 공부만 해서 지루하거나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다. MMC수업에서 뮤직비디오나 CF를 촬영하는데 정말 많이 그룹끼리 정이 들게 되고 큰 선물로 남는 것 같다. 나도 추천받아서 다녀오게되었는데, 왜 추천했는지 알 것 같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다. 기간이 조금 짧다고 느껴졌다. 시간이 3주동안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너무 아쉬웠다. 또 개인적으로도 또 가고 싶은 학교이고 지역이다. 선생님들이 너무 정들어서 SNS친구를 맺거나 아직도 연락을 하며 잘 지낸다. 또 결정적으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외국인과의 대화조차 잘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는 먼저 말을 걸 수 있는 용기도 생겼다.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주저없이 또 갈 것 같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